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트럼프 복귀, 전문가들 인플레이 전망 상향 조정
- FinanceYahoo: BofA CEO “연준은 트럼프 정책에 대응해야”

[미국 금융]

- Bloomberg: 트럼프 정책 전망에 달려, 국채, 증시 상승세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 취임 직후 이민, 에너지, 기후 환경 등 각종 행정명령 서명
- Bloomberg: 트럼프, 2월 1일까지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시행 계획
- CNBC: 트럼프 관세 조치로 가장 리스크가 큰 품목들

[오일]

- WSJ: 트럼프, 미 석유 비축량 늘리는 데 큰 비용 치룬다

[자동차]

- Bloomberg: GM “트럼프 관세, 자동차 구매자에게 손해 끼칠 것”
- Bloomberg: 트럼프, 친 전기차 정책 및 보조금 삭제 검토 행정명령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중국 “미국산 수입을 늘리겠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트럼프, 틱톡 금지 미룬다
- WSJ: 애플,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Trump's Return Nudges Economists' Inflation Outlook Higher 트럼프 복귀, 전문가들 인플레이 전망 상향 조정

- WSJ이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감세, 이민 제한 조치로 인해 향후 2년간 물가와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3개월 전의 예측인 2.3%에서 2.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향후 1년 동안 가구 지출 비용이 6백불 늘어나는 셈이다.
- 트럼프의 관세 인상 조치는 감세와 규정 완화 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다.

WSJ 기사

FinanceYahoo: Bank of America CEO: The Federal Reserve may have to respond to Trump BofA CEO “연준은 트럼프 정책에 대응해야”

- 뱅크오브아메리카의 CEO인 Brian Moynihan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적절히 조정하기를 원한다면 트럼프의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스위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야후 파이낸셜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 그는 연준은 새로운 재정 정책을 시도하는 행정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추가로 “미국은 중앙은행 주도의 경제도 아니라 실제 민간 섹터 중심의 경제이고, 정부도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부양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FinaneYahoo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s, Dollar Gain as Traders Look to Trump Boost: Markets Wrap 트럼프 정책 전망에 달려, 국채, 증시 상승세

- 트레이드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미국 경제를 진작 시킬 것으로 기대하면서 달러와 국채,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S&P 500은 6,000을 다시 회복하면서 올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스몰 캡 지수도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기술주의 경우는 애플주는 하락세, 엔비디아는 상승세를 보였다.
- 국채는 최근의 금리 급등이 회복되었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가 2월 1일까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시행한다고 말해 양국의 통화가 특히 타격을 입었다.
-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관세로 위험 자산이 혜택을 보며, 낮은 오일 가격 등으로 금리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가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행정부]

Bloomberg: A Rundown of Trump’s Executive Actions, From Tariffs to Immigration

트럼프 취임 직후 이민, 에너지, 기후 환경 등 각종 행정명령 서명

-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 75일간 틱톡 중단 일시 해제, 2021년 미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의 범죄자 대부분 사면, 78건의 바이든 행정명령 번복 등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에 트럼프 내린 행정명령 중 적지 않은 사안이 법적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관세 정책과 관련 대중국 관세에 대한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그는 어제 월요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는 2월 1일까지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보편관세는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는 관세 수입을 관리하는 '외부 수입 서비스청'을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관세 수입을 연방 재무부에 이전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 트럼프는 각 부처에 주택 공급, 의료 비용 축소, 에너지 가격을 올린 기후 정책 철회를 위해 '긴급 가격 완화' 조치가 이뤄지도록 명령했다.
- 또한 트럼프는 불법 거주자의 자녀와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여행객, 학생, 임시 비자를 갖고 있는 이들의 자녀에 대한 자동 출생 시민권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Plans to Impose 25% Tariffs on Mexico, Canada by Feb. 1

트럼프, 2월 1일까지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시행 계획

-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까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시행하는 방안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트럼프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최대 무역 거래국들이 미국에 불법 이민자들과 마약을 들어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취해질 경우 미 상품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내년에 검토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CNBC: Here are the products and companies most at risk from Trump's tariff plans

트럼프 관세 조치로 가장 리스크가 큰 품목들

-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관세 방안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했다. 대선 캠페인 기간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 운동화, 자동차, 가구, 맥주, 아보카도 등의 비용 증가는 많은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성인들이 67%는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를 소비자들에 전가 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Morning Consult 설문은 밝혔다. 응답자 45%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3분의 1 이상의 응답자는 모든 수입품과 중국산에 각각 20%, 60% 관세 부과를 예상했다.
- 현재 미국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산의 경우 운동화, 가구, 장난감, 멕시코의 경우 자동차, 맥주, 아보카도, 캐나다는 자동차, 코트 등이 많이 수입되고 있다.

CNBC 기사

[오일]

WSJ: Trump's Pledged Refill of Oil Reserve Would Carry a Huge Price Tag

트럼프, 미 석유 비축량 늘리는 데 큰 비용 치른다

-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대로 미국 전략 석유 비축량을 '정상 범위까지' 채우는 데 약 200억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1억8천만 배럴 이상의 비축유를 매각했다.
- 이후 석유 가격이 낮아지면서 재고를 어느 정도 보충해 현재 약 3억9천4백만 배럴을 확보한 상태다.

WSJ 기사

[자동차]

Bloomberg: Trump Tariffs Would Harm Major US Auto Buyer, GM Canada Chief Says

GM “트럼프 관세, 자동차 구매자에게 손해 끼칠 것”

- GM 캐나다 사장 Kristian Aquilina는 트럼프 관세는 미국의 자동차 공급망을 교란하고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켜 구매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를 위해 연방 기관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미국 간의 무역 관계를 평가하도록 연방 기관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필요하다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미국 자동차의 주요 구매자인 캐나다 소비자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Trillium Network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약 50%가 미국에서 수입된 것이다.

- 또한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의 65%가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의 자동차 및 부품 무역 적자는 약 277억 달러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ump Orders Removal of EV-Favoring Policies and Subsidies

트럼프, 친 전기차 정책 및 보조금 삭제 검토 행정명령

- 트럼프 대통령이 친 전기차 정책 및 보조금을 없애는 방안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 인플레이 감축법에 따른 7천5백 달러의 전기차 연방 세금 공제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따른 75억 달러의 전기차 충전소 관련 자금 지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와 같은 정책들이 전기차 구매를 강제하도록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주정부에 디젤 및 휘발유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2035년까지 매년 더 많은 무공해 차량을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China Vows to Import More Goods After Avoiding Early US Tariffs

중국 “미국산 수입을 늘리겠다”

- 중국 부총리 Ding Xuexiang은 미국산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 그는 “중국은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 균형 잡힌 무역을 위해 더 경쟁력 있는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7.3%의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 중국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최빈국과 무관세 협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Ding은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넓게 열릴 것이며, 비즈니스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과의 관계는 순조롭게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도 미국의 틱톡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Bloomberg: Trump Halts TikTok Ban, Giving App More Time to Find a Buyer****트럼프, 틱톡 금지 미룬다**

- 어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대신 틱톡이 미국 구매자를 찾을 수 있도록 75일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 트럼프는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이 틱톡 지분의 50%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이 틱톡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실제로 틱톡이 미국에 팔릴지는 아직 모른다.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매각 의사가 없다고 밝혔었다. 중국 정부도 영향력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주도권을 잃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틱톡의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구매자도 거의 없다.

Bloomberg 기사

WSJ: Apple's Smartphone Sales Slump in China as Huawei Gains Market Share**애플, 중국 시장 점유율 하락**

- 애플의 2024년 4분기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18% 감소했다. 애플은 2023년 4분기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이었지만, 이번엔 화웨이와 샤오미에 밀려 3위를 기록했다.
- 애플은 현지 경쟁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화웨이는 올해 중급형 스마트폰 노바 13시리즈와 고급형인 메이트 70시리즈를 출시해 애플의 프리미엄 시장마저 위협하고 있다.
- 중국에선 애플의 최신 AI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도 매출이 감소한 대표적인 이유다. 또한 중국 경제 위기로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신중해진 것도 있다. 올해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작년보다 3.2% 감소했다.

WSJ 기사

[보고서]**[트럼프 취임] 달러 가치, '관세' 발언에 출렁...범중국 증시는 일단 안도****'마가 7' 주식 상승세도 눈길**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날 관세 관련 발언에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21일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보합세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서 범중국 증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